

#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양상 연구

모졸 따지아나 민스크국립언어대학교 부교수



- I. 머리말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 방법과 내용
- II. 이론적 배경
  - 1. 학습전략
  - 2.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빈도
  - 2. 문법 능력 능숙도에 따른 문법 학습전략 사용
- IV. 맺음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온 문법 교육은 오늘 날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에 와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민현식, 2005; 민현식, 2010; 강수영, 1998 등). 하지만 이해영(1998: 411)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을 배제한 채, 고급 단계까지 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학습자와 달리 극히 한정적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목표어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셰르바(Щерба, Л.В., 1974: 48, 80)도 외국어 학습과정에서의 문법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학습은 문법을 의식적으로 숙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고자 할 때, 문법규칙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과 문법 지식이 별개가 아니며 의사소통능력이 소

통의 정확성을 추구할수록 문법 지식은 정확한 의사소통능력에 기여한다(민현식, 2005: 142). 하지만 어느 분야이든지 교수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 제공 그 자체가 학습자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제공받는 문법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능력의 향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가 문법 학습전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효율적 문법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지식과 문법 학습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법학습의 효율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공받는 문법 지식을 알맞게 활용해야 하며 문법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법 학습전략 훈련을 하기 전에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습전략이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 전략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 외국인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운다. 먼저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전략 사용과 범주별 전략 사용 정도를 분석하고, 다음에 상위권 학습자 집단과 하위권 학습자 집단 간에 전략 사용의 차이를 조사 분석한다.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양상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문법’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법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로서의 문법은 한 언어의 언어 단위를 생성하는 규칙 체계 전반을 가리킨 것으로서 음운 규칙, 의미 규칙, 문법 규칙 등을 포함한 개념이고 좁은 의미의 문법은 이를 규칙 중에서 음운 규칙과 의미 규칙을 제외한

문법 규칙만을 가리킨다(최재희, 2004: 16). 러시아의 문법 교육에서 ‘문법’이라는 용어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합한 언어의 구조, 문법의 체계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은 음성, 음운론, 어휘론, 조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법, 화행 국어사 등 거의 국어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러시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문법’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벨라루스에 있는 M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연구 대상은 3학년 학생 13명(여학생 11명, 남학생 2명)과 4학년 학생 13명(여학생 12명, 남학생 1명) 등 총 26명으로 하였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전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학습전략은 개개인의 내부적 인지과정이므로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의 장점은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학습전략과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전략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지는 관찰이나 개인 및 집단 면접을 통한 조사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문법 학습전략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학생들에게 다시 묻기 위해 학습자들과의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법 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략 사용 실태를 분

석하고 2012년 2학기 한국어 문법 수업 성적<sup>1</sup>에 따라 학생들을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 두 집단 간에 전략 사용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전략 사용 조사를 위한 선택형 설문지는 옥스퍼드(Oxford, 1990)가 개발한 ‘언어 학습전략 목록’이라는 자기 보고 문항을 기초로 하여 러시아어권 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습전략 분류 방법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지만, 본 연구자는 옥스퍼드가 제시한 분류 방법이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본다. 필립스(Phillips, 1991)와 브라운(Brown, 1994)에서도 옥스퍼드 분류법이 수준 높은 신뢰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종합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의 분류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옥스퍼드가 제시한 학습전략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옥스퍼드(Oxford, 1990)의 학습전략 분류

직접전략	인지전략 (상향 전략; 하향 전략)	기능적 연습, 메시지의 송수신, 분석과 추론, 새로운 언어 구조의 생산 등 일련의 직접적 방법을 통해 언어를 조직하고 변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억전략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검색을 돋는 특정 기술
	보상전략	추론, 유의어나 완곡한 표현의 사용 등 언어지식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간접전략	상위인지 전략	학습의 계획, 조정, 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정의전략	언어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 동기 등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돋는 기술
	사회전략	질문, 협력적 상호작용 등 학습과정에서 타인과의 학습경험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1990)를 기본으로 하여 총 39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의 문항 중 1-6번까지는 기억전략, 7-19번까지

1 평가 방법: 기말시험(60%), 평소 학습(30%), 출석(10%).

는 인지전략, 20-25번까지는 보상전략, 26-32번까지 상위인지전략, 33-36번까지는 사회전략, 37-39번까지는 정의전략을 측정하도록 작성하였다. 개별 전략이 속하는 범주의 구분이 때로 애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옥스퍼드(1990)가 제시한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다른 선행 연구들(Chamot, 1987; Chamot, 2005; Cohen, 1998; O'Malley & Chamot, 1990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옥스퍼드(1990)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학습전략을 다루고 있으나 문법 학습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법 학습전략 목록은 문법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학생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러시아어로 작성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다소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를 측정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921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 본 척도가 동일한 행동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에 모든 사용 가능한 학습전략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 인터뷰에서 설문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학습자들만의 문법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습전략

개별 학습자의 언어 학습전략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

히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학습전략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된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은 외국어 교육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MacIntyre, 1994: 185-186). 두 번째로 언어학습은 상당 부분 개별 학습자의 언어학습 활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교육 훈련시킴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이병민, 2003: 26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언어 학습전략 연구’에서 범위를 좁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언어 학습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학습전략이라는 용어는 보편화되어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학자들은 학습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학습전략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주된 접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옥스퍼드(1990)의 견해에 따르면 언어 학습전략의 개념은 학습을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재미있고 더 자기주도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Oxford, 1990; 박경자 외 역, 2003: 24). 샤мот(Chamot, 2005: 12)은 언어 학습전략을 학습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절차로 간주한다. 또한 코엔(Cohen, 1998: 70)에 따르면, 언어 학습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언어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전략의 체계를 개발하게 하고, 자기 평가 능력과 자율성,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게 해 준다. 루빈(Rubin, 1975: 73)은 학습전략을 학습자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나 장치라고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웬덴(Wenden, 1987: 6)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전략을 언어학적 및 내용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 기억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술, 접근으

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말리와 샤못(O'Malley & Chamot, 1990 : 235)은 웬덴과 루빈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언어학습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학습전략은 특정한 사고나 행위들로서 그러한 행위들은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저장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вл락(Pawlak, 2008: 4-45)은 문법 학습전략의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 ① 문법 학습전략은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실제로 취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다.
- ②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의식적 작용을 수반한다.
- ③ 문법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학습수단이다.
- ④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은 목표 지향적 및 목적의식적 학습 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 ⑤ 문법 학습전략은 학습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⑥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은 학습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언어 학습전략은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중요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적절한 언어 학습전략은 언어 능숙도를 높이고 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준다.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켜 준다. 예를 들어, 초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를 조절하고 학습과정에 집중, 계획, 평가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발달하도록 해 준다. 정의전략은 능동적으로 언어학습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끈기를 길러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발달하게 한다. 사회전략은 의사소통능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과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분석하기 등의 인지전략과 기존 지식과의 연계, 영상 사용 기법 등의 기억전략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새로운 언

어의 사용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보상전략은 부족한 지식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전략은 의사소통능력의 특정 측면(문법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사용이나 체계적인 복습 등의 기억 전략과 연역적 추론 및 대조 분석 사용 등의 인지전략은 문법적 정확성을 강화해 준다. 사회전략(질문하기, 원어민 화자와 협력하기, 또래와 협력하기, 문화적인 인식하기)은 사회·언어적 능력을 강력하게 돋는다. 많은 종류의 전략은 상당량의 실제 의사소통을 독려하며, 그 결과 담화 능력을 고양시킨다 (Oxford, 1990; 박경자 외 역, 2003: 16, 25).

## 2.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

모국어의 습득이 이루어진 후, 또 다른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선차적 능력이기보다는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외국어 교수법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그 인위적인 노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외국어의 문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Mozol, 2009: 129).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처음으로 한국어 문법 체계를 학습할 때 한국어 문법의 생소한 규칙과 논리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체로 한국어의 언어적인 특징과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언어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다른 언어 계통의 속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어와 구별되는 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통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가지는 문법적 차이를 편의상 형태론적 차이와 통사론적 차이<sup>2</sup>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

---

2 어떤 특성이 형태론적인 것이냐 통사론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국어에서 명확하게 구

도록 하겠다.

### 1) 형태론적 차이

형태론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어와 한국어 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어가 어형이 변화하는 굴절어인데 반해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점이다. 러시아어는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이며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의 언어이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어기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문법 관계를 표시하거나 단어를 형성한다.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것은 인구어인 러시아어와 달리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한국어에서 어기에 붙는 문법형태소의 수와 종류가 매우 풍부하고,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문법기능이 이들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문법형태소의 종류와 기능을 아는 것이 한국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고성환 외, 2005: 20-21). 반면, 러시아어는 형태적 측면에서 단어의 어미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 변화는 명사적, 대명사적, 동사적 어미 변화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품사는 대체로 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형태와 기능 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어의 특성상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러시아어와 달리 형태나 기능적 측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점,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도 러시아어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동사나 형용사의 하위 범주로서 보조용언이 있어 상과 양태 외에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명사의 수식 기능만을 맡고 있는 관형사의 존재, 격, 높임, 주제, 인용 등의 문법적 기능이나

---

분되지 않는 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형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품사에 관련된 현상이라든가, 조사와 어미에 관련되는 현상들은 통사론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고성환 외, 2005 : 20).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한국어의 특성을 형태적인 것과 통사론적인 것으로 나누기로 한다.

3 물론 한국어에서 조사의 교착어로서의 특성과는 달리 한국어 용언의 활용 현상은 굴절어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어가 교착어와 굴절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기타 어휘적 의미를 갖는 조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 등이 한국어 품사의 특징이다(임홍수, 2008: 278-279). 한국어는 러시아어와 달리 격변화를 하지 않고 문법적인 성이 없고, 한국어 명사는 단수, 복수의 구분을 위한 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심지어 복수형이 쓰여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보인다. 한국어는 러시아어와 달리 의존명사와 그 중 단위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의 위치명사(앞, 뒤, 아래 등)는 ‘명사+위치명사+후치사’ 유형의 구문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데 비해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위치관계가 ‘전치사 +명사’의 유형의 구문을 나타낸다. 한국어는 대명사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로 대명사의 쓰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러시아어와 달리 관계 대명사가 없고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가 형태상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어 품사 분류법은 샨스키와 티호노프(Шанский, Н.М., Тихонов, А.М., 1987)가 제안한 분류법을 따르고, 한국어 품사 분류법은 학교문법을 따르기로 한다.

**표 2.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품사**

품사	러시아어	한국어
명사	○	○
형용사	○	○
동사	○	○
수사	○	○
형동사	○	
부동사	○	
부사	○	○
대명사	○	○
전치사	○	
접속사	○	

조사	○	
감탄사	○	○
상태어	○	
양상어	○	
의성어	○	
관형사		○
조사		○

## 2) 통사론적 차이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어순이다. 러시아어는 SVO형 언어인 데 반해, 한국어는 SOV형 언어이다. SOV형 언어인 한국어가 가지는 지배적인 특징의 하나는 후치사 언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SOV형 언어는 ‘목적어-후치사-동사’처럼 후치사<sup>4</sup>를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끼운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어와 같은 SVO형 언어가 전치사 언어로서 ‘동사-전치사-목적어’처럼 전치사를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끼우는 것과 대비된다.<sup>5</sup> 한국어는 좌분지 언어에 속해 있고,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반대로 우분지 언어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수식 성분이 앞에 오고, 피수식 성분이 뒤에 온다. 러시아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수식어는 피수식어 뒤에 올 수도 있고 피수식어 앞에 올 수도 있다. 러시아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비교해 볼 때 다른 특성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두 개의 주어가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예를 들면, ‘그 병원은 시설이 좋습니다’, ‘이 물건은 값이 비쌉니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은 러시아어

- 
- 4 한국어에서 명사가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되고, 또한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결합되기도 하는데, 한국어의 조사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후치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 5 한국어가 SOV형 언어이고 러시아어가 SVO형 언어라는 것은 그린버그(Greenberg, J.H., 1963)의 언어보편성 논의에 따른 것이다.

에 존재하지 않는다).<sup>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인 러시아어 문법 체계와 목표어인 한국어의 문법 체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어에 있으나 러시아어에 없는 문법범주, 러시아어에 있어도 기능과 형태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 문법범주들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 문법은 러시아어 문법과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문법 항목의 총 수효가 많고 세분되는 용법과 유의어적인 것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어권 학습자가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은 많은 인지 노력과 효과적 사용의 전략을 요구하는 바, 이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어 문법 학습에 있어서는 러시아어와 매우 다른 한국어 문법 규칙 및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다양한 문법 학습전략 훈련이 커다란 중요성을 갖게 됨은 자명하다.

앞에서 진술한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에 존재하는 문법적 차이와 그 차이의 극복을 위한 전략 사용의 예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내가 어제 읽은 책이 책상 위에 있다. – Книга, которую я прочитал вчера, лежит на столе(직역: 책이/(관계대명사 that)내가 읽었다 어제/ 놓여 있다/위 책상에).

이런 간단한 문장을 한국말로 표현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말하기(쓰기) 전에 어순에 맞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미리 그려 보거나,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법의 차이점—SOV과 SVO 어순의 차이, 좌분지 언어와 우분지 언어의 차이점에 따른 수식성분과 피수식 성분의 위치, 위치 명사가 들어간 구문

6 이와 관련하여 이중 주어(겹주어), 주제어 등 논의가 분분하나,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구조 등— 및 한국어 구조를 염두에 둔 채 이해(표현)하는 인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짧게 끊어서 간단하게 말하거나 쓰는 (내가 어제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다) 보상전략이나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물어 확인하는 사회전략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문장의 뜻을 제대로 해석할 경우 스스로를 칭찬하는 정의전략, 문장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상위 인지전략,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SOV형 언어의 특징을 암기하는 기억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빈도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어려운 규칙이나 예외적인 규칙을 노트하여 학습’하는 전략(인지전략)으로서 평균 사용빈도수가 4.31을 나타냈다. 그 뒤로 ‘말하기(쓰기) 전에 문장어순에 맞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미리 만들어 보는’ 전략 (인지전략; 평균 4.27), ‘말하기(쓰기) 전에 적절한 문법표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전략(인지전략; 평균 4.19), ‘말할(쓸, 읽을 들을) 때 한국어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쓰는, 읽는, 듣는)’ 전략(인지전략, 평균 4.00), 그리고 ‘모르는 문법은 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물어 확인’하는 전략(사회전략, 평균 4.00)이 각각 뒤를 이었다. 즉, 학생들은 한국어를 들을 때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언어를 조작·변환하는 인지전략(노트하여 학습하기, 한국어 문법 구조에 주의 기울이기)과 타인과의 협력적 상호작용하는 사회전략(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질문하기)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사용빈도를 보인 전략으로는 ‘문법학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상위인지전략: 평균 1.81),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여 작문을 한다'(인지전략: 평균 2.04), '동료 학습자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문법학습을 한다'(사회전략: 평균 2.08),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여 대화를 해 본다'(인지전략, 2.19), '문법표현이 입에서 쉽게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한다'(인지전략, 평균 2.27), '문법을 암기하기 위해 문장을 만들어 본다'(기억전략, 2.27)의 순서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 학습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여 작문이나 말하기 활동(대화, 반복말하기)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문법 학습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는 개별 전략의 사용빈도 순위와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표 3. 개발 학습전략 사용빈도**

순위	전략 유형	전략 내용	평균	표준 편차
1	인지	어려운 규칙이나 예외적인 규칙은 노트하여 학습한다.	4.31	0.88
2	인지	말하기(쓰기) 전에 문장어순에 맞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미리 만들어 본다.	4.27	1.08
3	인지	말하기(쓰기) 전에 적절한 문법표현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4.19	1.12
4	인지	말할(쓸, 읽을, 들을) 때 한국어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한다(읽는다·쓴다·듣는다).	4.00	0.89
5	사회	모르는 문법은 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물어 확인한다.	4.00	0.83
6	보상	올바른 문법적 표현을 모르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	3.96	1.01
7	보상	천천히 말하더라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3.85	1.14
8	기억	문법을 학습할 때 기준의 문법 지식과 연결시켜 학습한다.	3.85	1.25
9	보상	문법 실수를 하면 스스로 고치고,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	3.77	1.16
10	기억	문법 내용을 암기하기 전 충분히 이해한 뒤 암기한다.	3.69	1.06
11	보상	내가 한 문법표현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풀어서 설명한다.	3.65	1.13
12	사회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법규칙을 알아낸다.	3.62	1.15
13	상위 인지	내 문제점들을 파악해 본다.	3.58	1.32
14	인지	새로운 문법 항목을 학습할 때 그것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해서 이해한다.	3.54	0.93
15	보상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은 짧게 끊어서 간단하게 말한다(쓴다).	3.50	0.98

16	사회	문법적 오류를 범했을 때 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교정을 부탁한다.	3.38	0.96
17	상위 인지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문법학습과 활용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35	0.85
18	기억	내가 했던 실수로부터 올바른 한국어 문법을 배운다.	3.31	1.24
19	보상	모르는 문법표현을 발견하면 그것의 뜻을 추측해 본다.	3.27	1.30
20	기억	학습한 문법을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상황을 상상하며 암기한다.	3.27	0.92
21	상위 인지	자신의 문법학습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본다.	3.23	1.14
22	정의	문법을 학습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한다.	3.15	0.88
23	인지	텍스트에서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교과서나 문법책을 찾는다.	3.12	1.23
24	상위 인지	내가 성취한 성과를 평가해 본다.	3.12	1.25
25	상위 인지	듣거나 읽을 때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법과 문장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2.96	0.95
26	기억	한번 학습한 문법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한다.	2.92	1.03
27	정의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쓰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한다.	2.88	1.13
28	인지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법의 유사/대조 점을 생각하면서 학습한다.	2.88	1.27
29	인지	문법책이나 문법정리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	2.85	0.98
30	정의	문법적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격려한다.	2.81	1.15
31	상위 인지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어 사용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노력한다.	2.77	1.06
32	인지	문법학습을 위해 자주 읽는다.	2.65	1.03
33	인지	문법학습을 위해 듣기 연습을 자주 한다.	2.62	1.06
34	기억	문법을 암기하기 위해 문장을 만들어 본다.	2.27	1.24
35	인지	문법표현이 입에서 쉽게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한다.	2.27	1.06
36	인지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여 대화를 해 본다.	2.19	0.98
37	사회	동료 학습자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문법학습을 한다.	2.08	1.29
38	인지	학습한 문법을 활용하여 작문을 한다.	2.04	1.45
39	상위 인지	문법학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질다.	1.81	1.22

학생들의 전체적인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39개 전략의 전체 평균 사용빈도는 3.2이었고, 표준편차는 1.25이었다. 학생들에게 조사한 설문지에서는 전략의 사용빈도

를 최소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최대 5 ‘매우 많이 사용한다’까지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척도 3 ‘보통 사용한다’에 해당하는 정도의 평균을 나타냈다. 즉, 이 연구에서 대학생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을 학습할 때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앞으로 문법 학습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4.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빈도**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빈도	평균	표준편차
	3.2	1.25

학생들의 문법 학습전략 범주별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상전략이 평균 사용빈도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전략이 3.27, 기억전략이 3.22, 인지전략이 3.15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정의전략이 2.95의 평균 사용빈도로 가장 사용이 적었고, 다음으로 상위인지전략 2.97의 평균 사용빈도로 가장 사용이 적었다.

**표 5. 범주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

순위	전략	평균	표준편차
1	보상전략	3.67	1.08
2	사회전략	3.27	1.29
3	기억전략	3.22	1.09
4	인지전략	3.15	1.36
5	상위인지전략	2.97	1.21
6	정의전략	2.95	1.32
모든 전략		3.20	1.25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학습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 보상전략과 사회전략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한국어 문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억전략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 2. 문법 능력 능숙도에 따른 문법 학습전략 사용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어려운 규칙이나 예외적인 규칙을 노트하여 학습’하는 전략(인지전략)으로서 평균 사용빈도수가 4.31을 나타냈다. 그 뒤로 ‘말하기(쓰기) 전에 문장어순에 문법 능력 능숙도에 따라 문법 학습전략의 사용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M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문법’ 과목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학생 26명 중 성적 8학점 이상 취득한 16명을 상위집단으로, 7학점 이하 취득한 학생 10명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sup>7</sup> 이를 바탕으로 먼저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 능숙도에 따른 문법 학습전략 사용 정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문법 학습전략의 범주별로 능숙도에 따라 개별 전략의 사용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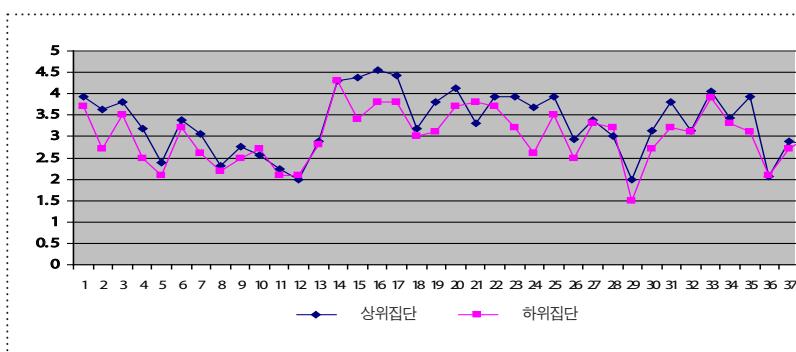


그림 1.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개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 패턴

7 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등급/학점	10	9	8	7	6	5	4	F
실점(%)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0-69	6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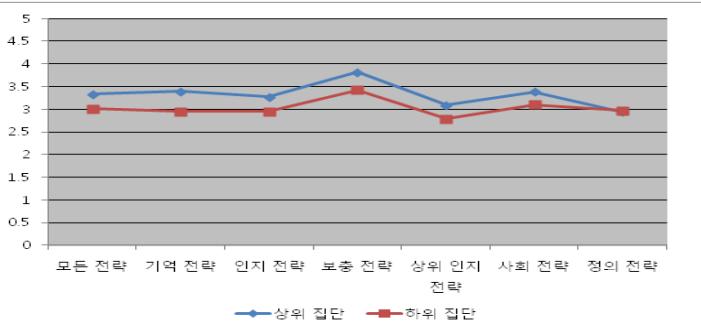


그림 2.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범주별 문법 학습전략 사용 패턴

떻게 다른가를 살피고자 한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활용되는 모든 전략의 사용 실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대체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전략의 사용빈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하위집단 학생들이 잘못되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문제가 전략 사용빈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전략 사용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문법 능숙도에 따라 문법 학습전략의 전체적인 사용빈도와 개별 전략 범주별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문법능력 능숙도에 따른 문법 학습전략 사용빈도

전략	상위집단		하위집단		t	유의확률 (양쪽)	비고 <sup>8</su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든 전략	n=624		n=390		3.90	0.000	***
	3.33	1.27	3.01	1.22			

8 \*\*\* :  $p < 0.001$  extrem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  $0.001 < p < 0.01$  very statistically significant; \*:  $0.01 < p < 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ns:  $p > 0.05$  not significant.

기억전략	n=96		n=60		2.46	0.015	*
	3.39	1.10	2.95	1.02			
인지전략	n=208		n=130		2.09	0.038	*
	3.27	1.37	2.95	1.32			
보상전략	n=96		n=60		2.23	0.027	*
	3.82	0.99	3.42	1.17			
상위인지 전략	n=112		n=70		1.66	0.098	ns
	3.09	1.27	2.79	1.15			
사회전략	n=64		n=40		1.06	0.294	ns
	3.38	1.33	3.10	1.24			
정의전략	n=48		n=30		-0.09	0.925	ns
	2.94	1.36	2.97	1.27			

표 6에서 나타낸 것처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문법 학습전략의 전체적인 사용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성이 있다( $p<0.001$ ), 즉, 높은 수준의 문법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문법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개별 전략 범주별 분석한 결과, 간접적인 전략(상위인지전략, 사회전략, 정의전략)의 사용은 문법 능숙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직접전략(인지전략, 기억전략, 보상전략)은 문법 능숙도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인터뷰에서 설문지에 언급되지 않은 학습자들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상위권 집단에 속한 학습자 7명이 다음과 같은 10개의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 ● 인지전략

- ① 한국어와 영어의 유사/대조점을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 ② 여러 문법교과서와 문법사전에 나온 설명을 정리하고 공부한다.
  - ③ 자기 자신에게 문법 규칙을 쉽게 설명해 본다.
  - ④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만든다.
  - ⑤ 문법학습을 위해 한국 노래를 듣는다.
  - ⑥ 여러 문법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정리한 후 연습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풀어 본다.
  - ⑦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카드나 문법 정리 자료를 만든다.
  - ⑧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이 사용된 대화문을 읽는다.
- 기억전략
- ① 문법을 암기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이미지를 사용한다.
  - ② 내가 만든 카드를 보고 문법 규칙을 외운다.

반면, 사후 인터뷰에서는 하위권 학습자들은 설문지에 언급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전략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는 상위권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인지적 전략과 기억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통계 분석 결과를 또한 뒷받침해 주고 있다.

## IV. 맷음말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 학습전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문법 학습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국어의 문법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그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와 러시

아이 문법 체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문법 학습이 매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후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또한 문법 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총 39개 전략의 전체 평균 사용 빈도는 3.2이었고, 표준편차는 1.25이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척도 3 ‘보통 사용한다’에 해당하는 정도의 평균을 나타냈다. 즉, 이 연구 대학생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을 학습할 때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앞으로 문법 학습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생들의 문법 학습 전략 범주별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학습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 보상전략과 사회전략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한국어 문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억전략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문법 학습전략의 전체적인 사용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문법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문법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개별 전략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간접적인 전략(상위인지전략, 사회전략, 정의전략)의 사용은 문법 능숙도가 상위인 집단과 하위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접적인 전략(인지전략, 기억전략, 보상전략)은 문법 능숙도가 상위인 집단이 하위인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습자(16명) 중에 7명(44%)이 설문지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신들만의 8개의 인지전략과 2개의 기억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능동적인 학습자는 한국어 문법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문법과 연결시키기, 이미지나 그림 사용 기법의 기억전략과 비슷한 표현 사용하기, 풀어서 설명하기 등의 보상전략과 문장을 머릿속에 미리 만들어 보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문법 정리 자료 만들기 등의 인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언적 문법 지식과 절차적 문법 지식이 의사소통능력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법학습은 외국어 학습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어 문법에 능숙한 학습자들은 문법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양한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응호하는 학자들은 명시적인 문법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의심하지만, 능숙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이 한국어 실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법의 명시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sup>9</sup>, 스스로도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문법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가 앞으로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연구와 전략 훈련 방안을 개발하는 데 실용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의 틀에서 보면 극히 일부만 다루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 사용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략 훈련에 관한 많은 연구 (Chamot & Küpper, 1989; Chamot, 1987; Oxford, 1990)에서 전략 훈련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만 외(Naiman et.al., 1978), 코엔과 아페크(Cohen & Aphek, 1980), 호젠펠트(Hosenfeld, 1984), 오말리(O'Malley,

9 성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들의 문법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한국어 문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전술문에 대해 상위권 학습자들은 리커트 척도(최소 점수는 1점이고, 최대점수는 5점이다)로 평균 4.5점을 매긴 데 반해, 하위권 학습자들은 평균 3.8점을 매겼다.

1987), 스테비크(Stevick, 1989), 로스와 로스트(Ross & Rost, 1991) 등에 따르면 훌륭한 언어학습자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부진한 학습자도 성공적인 언어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훈련받음으로써 학습하는 언어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략 훈련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O'Malley, J.M., Chamot, A.U., Stewner-Manzanares, G., Küpper, L., Russo, R., 1985; O'Malley J.M. & Chamot, A.U., 1990)도 있어 전략 훈련을 실시할 때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략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 훈련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략 훈련 기간, 전략 훈련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파악, 전략 사용의 필요성, 전략 훈련의 계획 수립, 수업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전략의 투입과 지도, 전략 연습 기회 제공,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습 방법 파악, 전략 훈련 후 피드백, 새로운 학습에 적합한 학습전략 고안 등을 고려하여 전략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Mozol, 2010: 141).

따라서 앞으로 하위권 학습자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사용을 돋기 위해서 하위권 학습자들에게 상위권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의 훈련 방안을 개발하여, 이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 실시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전략 훈련이 문법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일한 학습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수준에 차이가 있거나, 동일한 학습전략 사용 이후의 문법 능력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실제적인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전략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언어권 학습자의 문법 학습전략을 분석해서 모국어에 따라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수영(1998),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수업에서 문법 교육의 역할」,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제5권, 제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 293~308.
- 고성환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민현식(2005), 「문법 교육의 표준화와 다양한 실제」,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125~191.
- \_\_\_\_\_ (2010), 「통합적 문법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 제12호, 한국문법교육학회, pp. 1~37.
- 이병민(2003),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변인으로서 언어학습 전략: 연구 동향과 방향」, 『한국어교육』, 제14권, 제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261~288.
- 이해영(1998), 「문법 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pp. 411~438.
- 임홍수(2008),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대조」, 『국제문화연구』, 제1~2집, 국제문화연구원, pp. 269~290.
-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Mozol, T.(2009), 「러시아어권 한국어 교재 연구」, 『Newsletter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제8권, 제16호, Center of Korean Studies Kazakh National University named after al - Farabi, pp. 124~139.
- \_\_\_\_\_ (2010),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듣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사적 담화로서의 TV뉴스 듣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own, H.D.(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 권오량 외 역*(2002),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Chamot, A. U.(1987), The learning strategies of ESL students. In Wenden, A. & Rubin, J.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_\_\_\_\_ (2005), "Language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current issues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5: pp. 112~130.
- Chamot, A. U. & Küpper, L.(1989), "Learner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Foreign Language Annals* 22-1: pp.13~24.
- Cohen, A. D.(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Y: Longman.
- Cohen, A. D., & Aphek, E.(1980), "Retention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over time: Investigating the role of mnemonic associations," *System* 8: pp. 221~235.
- Greenberg, J.H.(1963),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 Hosenfeld, C.(1984), Case studies of ninth grade readers. In Alderson, J. C. & Urquhart, A. H.(Ed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London: Longman.
- MacIntyre, P. D.(1994),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of strategy use," *Foreign*

- Language Annals 27-2: 185~195.
- Naiman, N., Fröhlich, M., Stern, H. and Todesco, A.(1978), "The Good Second Language Learner," *Research in Education Series No. 7*,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O'Malley, J. M.(1987), The effects of training in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o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 Wenden, A. & Rubin, J.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Malley, J. M. & Chamot, A. U.(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Malley, J. M., Chamot, A. U., Stewner-Manzanares, G., Kupper, L., Russo, R.(1985), "Learning strategies used by beginning and intermediate ESL students," *Language Learning* 35-1: pp. 21~46.
- Oxford, R. L.(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 박경자 외 역(2003), 『영어 학습전략』, 교보문고.*
- Philips, V.(1991), A look at learner strategy use and ESL proficiency, CATESOL Journal Nov.: pp. 57~67.
- Pawlak, M.(2008), *Investigating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oznan-Kalisz: Adam Mickiewicz University Press.
- Ross, S., & Rost, M.(1991), "Learner use of strategies in interaction: Typology and teachability," *Language Learning* 41-2: pp. 235~273.
- Rubin, J.(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1: pp. 41~51.
- Stevick, E.(1989), *Success with Foreign Languages: Seven Who Achieved It and What Worked for Them*, NY: Prentice Hall.
- Wenden, A.L.(1987), Conceptual background and utility. In Wenden, A.L. & Rubin, J.(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Шанский, Н.М., Тихонов, А.Н.(1987),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орфология, М.: Просвещение.
- Щерба, Л.В.(1974), Преподав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Общие вопросы методики, М.: Высшая школа.

##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양상 연구

모출 따지아나

효율적 문법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지식과 문법 학습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법 학습의 효율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공받는 문법 지식을 알맞게 활용해야 하며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법 학습전략 훈련을 하기 전에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습전략이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 전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학습할 때 보상전략과 사회전략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한국어 문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억전략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문법 학습전략의 전체적인 사용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문법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문법 학습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개별 전략 범주별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전략(인지전략, 기억전략, 보상전략)은 문법 능숙도가 상위인 집단이 하위인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가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사용 연구와 전략 훈련

방안을 개발하는 데 실용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문법 학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학습전략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grammar learning strategies used by the Russian speaking student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Mozol Tatiana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paucity of empirical investigation in the use of Korean grammar learning strategies by international students. To achieve this aim I examine the academic literature, design questionnaires, conduct interviews, evaluate students grammar skills and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in the process of this work. I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following-up interview in order to analyse the Korean grammar learning strategies applied by Russian speaking stu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grammar strategies and learners' Korean grammar proficiency. The analysis results presented that learners who had a high-level Korean proficiency reported more frequent use of grammar strategies than those with a low-level Korean proficiency, and that two groups of learners differed in their frequency of the use of grammar strategies overall. However, with respect to specific types of grammar strategies, the results showed that two groups differed only in the use of direct strategies (memory strategy, cognitive strategy and compensatory strateg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e development of a basis for further studying of the grammar learning strategies used by Russian-speaking learners of Korean and teaching techniques of grammar learning strategies.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urgent need for subsequent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ammar strategy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ussian speaking learners of Korean language, Grammar learning, Korean grammar for foreign students, Learning strategies.